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폐기물 자원화의 모범 사례로

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08년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식」행사가 지난 5월 27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수상 시·군·구 대표, 유공자, 이병욱 환경부 차관, 김진만 한국EPS재활용업협회의 회장 등 내빈, 지명석 협회장 및 협회 회원사 대표,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시상식은 수상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협회장 축사, 환경부 장관 격려사와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의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다.

지명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실적을 70%가 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헌신적 노고를 치하하고 협회도 장기 재활용 목표 75% 달성과 재활용제품의 해외수출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스티로폴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PR제도의 성과와 특히 스티로폴 품목의 성공적 재활용 실적은 협회, 생산자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또한 이 차관은 정부도 재활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연순환사회연



△ 격려사를 하고 있는 환경부 이병욱 차관



△ 제천시에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지명석 회장(좌)



대, 스티로폴 원료공급업체, 협회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지자체 선정위원회」(위원장 협회 최주섭 부회장)는 각 시·도에서 추천된 16개 지자체 중 격론 끝에 소도시임에도 직영으로 많은 양의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을 기록하고 대규모 자원관리센터 건립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는 **충북 제천시**를 2008년도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지자체로 뽑았다. 최우수지자체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단체), 협회장 공로패와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 및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 등이 수여되었다.

서울 양천구, 부산 동래구,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군, 대전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북구,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경북 김천시,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시, 강원 속초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협회장 공로패와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 및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 등을 받았다.

한편 지명석 회장은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이승원 무문산업 대표(경기 화성 소재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 오안권 서현 대표(충북 청원 소재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 선우영식 한국환경자원공사 대리(EPR 제도 담당), 안윤식 (주)하이우드 이사(액자 프레임 제조업체) 및 이재성 예코뉴스 발행인(스티로폴 재활용 홍보)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자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분리수거·재활용을 하는 스티로폴 품목의 특성에 맞춰 참여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행사는 지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